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LOVE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여러분, 혹시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아…”라고 느낀 적 있나요? 시험 성적, 친구 관계, 가정 문제… 아무리 애써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죠. 마치 거대한 바다가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에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이런 위기를 주시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무사히 건넜고, 오히려 이집트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버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바다를 가르신 분도, 길을 내신 분도, 적을 무찌르신 분도 모두 하나님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절대 안 될 것 같은” 홍해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내딛을 때, 하나님은 마른 땅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 길은 기적의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에요. “지금은 길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계십니다.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작고 약한 내 모습 다 같이

말씀봉독 출애굽기 14:21~31 다 같이

설 교 불가능을 가르신 하나님 설 교 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직고 약한 내 모습



▶ 찬양 영상 바로가기

축복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 앞의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위기를 만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나요?
2. 내 삶 속에서 '홍해 같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